



## 오페라, 그리고 푸치니와 베르디

신기숙

중세 때는 종교음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음악이 중세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식으로 음악을 시작한 곳은 교회였으며 찬양을 하기 위해 음악이 발전하던 시기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자 위기의식을 느낀 성직자들은 사람들을 끌기 위해 뭔가 재미있는 꺼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래를 불렀고 곧 연극과 뮤지컬까지 하게 된 것인데, 물론 모두가 성가였고 성극이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음악은 늘 형식과 틀에 매인 딱딱한 음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비록 중세 교회 안에서 교회 부흥을 위해 음악의 변화를 시도했다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데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르네상스에 들어와 사상과 세계관이 인본주의적으로 바뀌면서 음악도 사람을 위한 예술의 한 장르로서의 음악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크게 발전되어졌다. 즉 이전에는 사람의 감정을 묻어 났던 음악이 (사람이 음악의 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기쁨이나 슬픔이나 밖으로 분출하면서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게 된 것이었다. 예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 맞춰지면서 다양하고 더 아름답고 눈 부실만큼 발전되어졌다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인간의 마음, 그 모든 정서를 표현하면서 크게 발전한 것 중의 하나가 오페라이다. 오페라는 16세기 도시 생활이 빨리 발달했던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발전되었다. 이는 전 유럽으로 퍼져 큰 영향을 미쳤고 각 나라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형식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 왔으나, 지금까지도 16세기의 이탈리아의 형식을 갖춘 것을 오페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오늘 날의 위상을 갖추도록 끌어 올린 작곡가가 바로 베르디와 푸치니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들에 대해 알아보고 몇 세기가 지나도록 오래 기억되어지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한다.

### 베르디와 푸치니: 출생 배경

베르디 (1813.10.10 - 1901) : 이탈리아 북부의 농촌 론콜레에서 탄생. 대대로 내려오는 소지주가 문으로 여인숙을 경영하고 상업에도 종사했다. 출생 후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러시아군과 오스트리아군의 침입이 있자 어머니가 베르디를 안고 마을 성 미카엘 교회 지하에 숨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

푸치니 (1858.12.22 - 1924) : 중앙 이탈리아의 상업 도시 루카에서 탄생. 대대로 음악가 집안, 조부부터 오페라 음악가, 아버지는 도니제티를 사사한 오페라 작가였다. 어린 시절 그의 집은 무척 가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난했었고 그는 오직 새 잡는 일 이외에는 항상 무기력해보이거나 어떤 일에도 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베르디와 푸치니: 생애

베르디 : 어려서부터 재능을 보인 베르디는 7세 때 교회 미사의 시동이 되어 파이프 오르간의 풀 무질을 했다. 교회 오르가니스트에게 악보 읽는 법 등, 기본 음악을 배웠다. 10세 때에 이미 교회 오르가니스트가 되었다. 부세토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오르간 주자 프로베지가 음악학교의 강의를 청강하게 해 주어 음악의 기초를 다지고 훗날 장인이 된 바레치는 그를 집에 입주시키고 피아노를 가르쳤다. 16세때 이미 노래, 피아노곡, 교회음악, 행진곡등을 작곡한다.

18세에 밀라노 음악학교서 공부를 하려던 꿈이 좌절되었으나 작곡가 빈센조 라비나에게서 실질적 기초 지식과 오페라에 대해 배우게 된다. 1835년 부세토의 음악 감독에 취임하고 자신과 23살로 동갑인 바레치의 딸 마르게리타와 결혼한다. 하지만 그 후 몇 년 사이에 딸과 아들 마지막으로 아내마저 병으로 죽고 그의 첫 오페라 '로체스텔'은 실패였다. 그러던 중 스칼라 극장의 소유자 메렐리와 알게 되어 다음 오페라 의뢰를 받게 되고 슬픔을 이기기 위해 신작 '오베르토' 공연에 더욱 힘을 쓰고 성공하게 된다. '가짜 스타니 슬라오 (또는 하루만의 임금님)'을 스칼라 극장에서 상연했으나 이 또한 참담한 실패를 하고 하루만에 공연을 중단했다. 크게 낙담한 그는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이 때 스칼라 극장의 소유자 메렐리가 그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한 대본 '나부코'(구약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를 본 베르디는 그 것이 자신이 항상 즐겨 읽는 성경을 의역해 놓은 것이어서 다시 한번 작곡을 하여 3개월 만에 완성을 한 이 오페라는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것은 '나부코'에서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오스트리아의 무장 통치 속에서 지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로 베르디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나부코에 출연했던 가수 죠셉피나 스트레포니와 12년을 사귀다 다시 결혼하게 된다. 그는 부세토 근처에 농장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작곡 활동과 더불어 농사와 독서로 여생을 보내면서 부세토의 하원 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1901년 밀라노에서 뇌졸중으로 죽기까지 음악가로서 명예와 부를 지니고도 농부로서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푸치니 : 그가 5살 때 아버지를 잃고 외삼촌에게서 음악의 기초를 배웠다. 어머니가 찾은 선생님 안젤로니가 푸치니의 재능을 발굴해 빛이 나게 해 주었다. 루카 교회 성가대원이나 부근 교회의 오르간 주자로 활동하면서 그의 재능을 키워 가던 중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보고 감동을 받아 자신도 오페라 작곡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

장학금을 받아 밀라노로 가서 폰키엘리의 제자가 되고 훗날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쓴 마스카니와 가난했지만 자유분방한 생활을 한다. 경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쓴 첫 오페라 '르 빌리'는 경연에서는 떨어졌지만 대본 작가 폰타나, 출판업자 리코르디, 작곡가 보이코 같은 사람의 도움으로 공연되어 성공을 거두게 된다. 푸치니는 엘비라 본투리라는 기혼 여성과 동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푸치니의 가족들과 관계가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페라 '에드가'의 진행은 어렵지만 하여 5년이란 세월을 끈 끝에 초연을 하기는 했지만 단 3

회 공연으로 막을 내려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코르디는 푸치니가 오페라 작곡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마농 레스코' 작곡할 때까지 후원하게 된다. '마농 레스코'가 발표될 당시는 이미 친구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 그리고 베르디의 '팔스타프'등의 걸작이 잇따라 발표되어 성공을 거두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마농 레스코'에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이로써 명예와 부를 얻게 된다.

1904년 엘비라의 남편이 죽자 결혼했는데 이들은 이후로 끝없이 싸우며 살게 되고 푸치니는 영감이 필요할 때마다 새 여자를 찾곤 했다. 그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를 극진히 간호해주던 하녀를 질투했던 엘비라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고한 하녀가 자살하게 되었고 그 후로 푸치니는 슬픔과 고통으로 죽을 때까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 후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면서 '나비부인', '토스카', '라 보엠' 같은 명작들을 발표하게 된다. 그는 고씨의 희극 '투란도트'를 작곡하다가 완성을 보지 못하고 인후암 수술 후에 심장 마비로 1924년 브뤼셀에서 사망했다.

### 그들의 작품 세계

베르디 : 그의 오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 내적인 감정들에 대한 표현과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구성되는 멜로디에 있었다. 그 중 비극이란 소재는 인간의 불행에 대해 침묵하는 신에 대한 원망과 그로 인한 초월의 관념을 불러 오며,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거대한 힘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고를 말한다. 그의 작품에는 이런 요소가 어둡고 깊게 깔려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운명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도 나타나는데, 운명이란 사실 인간이 만든 체제나 상황에 의한 것임을 그가 인지하고 그의 작품에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미사, 작은 합창곡, 등 같은 교회음악들도 작곡했는데 그 곡들은 오페라 요소들을 포용하고 있었으며 그의 레퀴엠도 연극적이어서 일부의 비평을 받기도 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은 성경에 곡을 붙인 ((네개의 거룩한 소품))이다. 이것은 가장 원숙하고 위대한 창조의 산물이며 그의 영감이 끝까지 쇠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써 이 위대한 작곡가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헌물이라 할 만하다. (그는 이 중에 '테 데움'의 악보를 자신과 함께 묻어 주길 바랬다).

푸치니 : 그의 오페라 작품은 '빌리', '마농 레스코', '라보엠', '토스카', '나비부인', '투란도트', '서부의 아가씨', '제비', '수녀 안젤리카', '에드가', '일 트리티코', '잔니 스키키' '외투', '교향적 카프리치오'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의 체제는 대중과 밀착되어 있는데, 즉 《투란도트》 이외의 주인공은 서민적이면서 비운의 여자 주인공을 등장시켜 일반 청중들의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푸치니의 오페라는 전반적으로 연출이나 무대미술, 조명, 막의 설정 등의 효과와 특별히 배우의 연기력이 매우 중시되는데 예를 들어, '토스카'는 사랑, 질투, 탐욕, 증오, 죽음 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도의 여러 감정들을 긴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연기해야 한다. 인물의 묘사에 있어서는 사실의 묘를 기했으며, 노래는 생기 있는 감정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관현악은 새로운 수법을 효과적으로 다루었으며 지방색을 즐겨하여 그 분위기를 교묘하게 표출하였으며, 무대에 대한 그의 예리한 감각으로 잘 계산하여 극적인 효과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

## 비교하면서

위에서 보드시피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더 없이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하여 신 앞에 자신의 감정이 무시되도록 훈련되어진 것을 뒤집어, 곁으로 빠져나오고 들춰진 인간 내면의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어질 때 언어라는 표현이 갖는 한계성을 뛰어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즉 음악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의 매개체를 통해 증폭되어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들의 삶의 말년을 눈 여겨 보면 베르디는 자신의 명예나 화려한 생활을 마다하고 농장을 구입하여 근 이백여 명의 농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도 그들의 임금을 오히려 올려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가 하면 그의 작품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을 가난하게 은퇴한 음악인들을 위한 양로원 '휴식의 집'에 다 기부하기도 한다.

베르디나 푸치니가 모두 교회에서 음악을 배우고 음악가로서의 발길을 내딛었으나 베르디는 절망의 깊은 속에 있을 때에도 성경을 읽고 마음에 믿음을 지켜나간 것에 비해서 푸치니는 결국 자기 연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못했다. 푸치니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인색했는데 아마도 그의 성장기에 겪은 지독한 가난과 기독교적인 사고가 부족해서 일거라고 본다. 어쩌면 150여년 동안이나 음악을 해 왔던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레 배울 수밖에 없는 비교와 경쟁의 심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인정하는데 인색하게 했을 수도 있다.

두 사람이 다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관심을 가졌고 탁월한 재능과 영감으로 세상을 감동시켰으나 진실한 감동은 베르디처럼 인간 현실의 고통도 잊지 않고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인간들을 위해(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헌신하여 걸작들을 남겼던 두 사람을 보면서 그들 중에 하나님께 마지막 작품을 바치며 자신의 삶을 마쳤던 베르디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다.

## 푸치니의 투란도트

그의 12개의 오페라 중에 단 하나만이 희극이고 또 다른 하나, '투란도트' 만이 헤피 엔딩이다. 그가 60 초반에 현실에 바탕을 두고 감상적 멜러가 주종을 이루던 스타일을 벗어나서 환상적인 어떤 것, 즉 우화인 동시에 인간적인 감성과 감동으로 가득 찬 무엇인가를 원했다. 우연히 동양적인 우화에 이탈리아 희극의 특징을 섞어 히트를 치고 있었던 고씨의 희곡우화 10편 중에서 투란도트를 발견하게 된다.

푸치니는 시모니와 아다미에게 대사를 쓰게 했고 이들은 5막의 고씨 희극을 3막으로 줄임과 동시에 많은 장면과 등장인물을 생략하는 등 구성을 단순화 하였다. 푸치니는 4년 동안이나 이 오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쏟아 부었으나 결국 마지막 2개의 장, '위대한 사랑의 이중창'과 '중국 궁궐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끝내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

이 사랑의 이중창은 푸치니가 대본을 4번이나 수정시킨지 2년이 지나도 완성될 수 없었다. 그는 이 사랑의 이중창을 통해 두 주인공이 속세의 저편에서 사랑을 통해 인간적인 인간으로 변화해야 한

다는 것을 부르짖었음에도 완결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심리 속에 진정한 사랑의 긍정적이고 고양적인 측면과 일치할 수 없는 장애가 되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 오페라에는 숭고한 사랑을 죽음으로 승화시키는 '류'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녀는 푸치니가 극의 완성도를 위해 만들어 낸 인물이며, 고씨의 원 희곡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비극적 요소이다.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것은 푸치니의 다른 몇몇 오페라에서도 나타나는 일종의 죄의식 관념이다. 이 관념은 작품 속에 나타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푸치니 자신의 심리적 강박 관념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강박관념은 항시 그로 하여금 사랑을 죽음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죄의식과 동일하게 생각하도록 하였다.

어쨌든 푸치니는 류가 자살하는 장면까지 작곡을 했으며 이 오페라를 처음 지휘했던 토스카니니는 이 부분에서 지휘봉을 놓고 '마에스트로께서 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관객들은 조용히 퇴장했다고 한다. 공연은 엄청난 성공이었다. 공연 도중 관객들은 깊은 감동 속에서 갈채를 보냈으며 "비바, 토스카니니!"의 함성이 극장을 가득 채웠다. 또한 신문들도 대부분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지만 푸치니 예술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 이 오페라가 대중들을 당혹케 한 것은 명백했다. 심지어 비평가들마저 이 새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안달했을 정도였다.

이 오페라의 뒷부분은 토스카니니의 제안에 의해 스타일면에서 푸치니의 영향을 받았던 프란크 알파노가 푸치니가 죽을 때 남겨 놓은 축소된 메모와 악보를 바탕으로 완성했는데, 그 스타일의 상이함이 조성이나 특히 관현악 편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희곡과 오페라를 비교해 보면 고씨의 희곡은 아이와 같은 순진함을 갖고 있는 코믹한 이야기로 남녀 간의 갈등을 숨기고 있다. 반면 푸치니의 오페라에는 음울한 광경이나 야만스러움이 깔려 있으며 투란도트의 처참한 포고문을 읽는 관리와 백정, 망나니를 향해서 외치는 군중, 잔인한 파틴 푸오의 등장, 수수께끼 장에서의 굉장한 긴장감과 류의 고문과 자살에 이르기까지, 푸치니의 예리한 터치들 통해 이 분위기는 다시 강조된다.

오페라의 주인공 투란도트를 보면 희곡과는 달리 남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잔혹한 여인이며, 푸치니의 무의식속에 잠재된 어머니와 부인의 영상이 복합된 존재인데, 그의 아내 엘비라가 여종을 자살로 몰아넣었듯이 투란도트는 류를 자살로 몰고 간다.

'나비부인'에서도 그랬듯이 푸치니는 이 오페라를 작곡하기 전, 극동 지역의 인종학을 공부했고 고대 중국의 관습과 의식들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으며, 중국 악기들에 깊은 관심을 두고 또 중국 궁정 음악과 민요 모음집을 숙독했다. 실제 '투란도트'에서는 최소한 8개 부분에서 중국적인 곡조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오페라의 오케스트라 편곡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많이 있는데 그의 모든 오페라 중에서 가장 오케스트라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각 등장인물에 따라 그 성격을 대변할 만한 소리를 가진 악기를 함께 배치한 세심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중요 감상 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이 오페라를 그의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그의 다른 오페라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4가지 요소들을 이 작품에 다 모아 댄다는 것이다. 즉 극적이며 웅장한 요소, 서정적이며 감성적인

요소, 희극적이고 우스꽝스런 요소, 그리고 이국적인 요소이다.

-----

<투란도트>

때 : 전설시대

곳 : 중국 북경

등장인물 : 투란도트(S), 알툼(T), 티무르(B), 칼라프(T),

류(S), 핑(Br), 풍(T), 광(T), 관리(Br) 등

<줄거리>

제 1막 북경의 왕궁 앞 광장

한 관리가 등장해 절세미녀인 투란도트 공주는 자신이 내는 세 개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할 것이며 만일 한 문제라도 맞히지 못 할 경우에는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전한다. 이미 여러사람이 도전했으나 형장의 이슬이 되었고 곧 페르시아 왕자도 사형이 집행된다고 알려진다.

군중 사이에 남루한 옷을 걸친 늙은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조국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타르타르 왕 티무르였다. 이 때 군중에 떠밀려 쓰러지면서 한 젊은 남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 젊은이는 전쟁중에 죽을 줄로만 알았던 자기의 아들 칼라프 왕자였다. 티무르를 시중들고 있던 노예 류도 몹시 기뻐하는데 그녀는 남몰래 왕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재회의 기쁨을 누린다.

군중의 함성이 들리더니 투란도트 공주가 성곽에 나타나 페르시아 왕자의 사형 집행을 신호한다. 그 순간 칼라프는 그녀의 미모에 매혹되어 수수께끼에 도전할 결심을 한다. 티무르와 류는 극구 만류하지만 막무가내이다. 멀리서 사형된 왕자들의 혼령을 부르는 합창소리가 들려온다.

칼라프를 사랑하는 류가 '나의 말을 들어주오(Signore, ascolta)'를 부르며 말린다. 애절한 그녀의 호소에 칼라프는 감동하지만 반듯이 수수께끼를 풀겠다고 '울지말아요, 류!(Non Piangere, Liu!)'라는 아리아를 노래한다. 우스꽝스럽게 생긴 세 명의 대신 핀, 판 그리고 폰이 목숨을 아끼라고 그를 저지하고 군중도 이에 동조한다. 그러나 그는 투란도트 공주의 이름을 높이 외치면서 단호히 나아가 징을 두드린다.

제 2막 북경의 왕궁 앞 광장

궁전 안에서 핑, 광 그리고 풍은 무정하기 그지 없는 투란도트 공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13명의 불쌍한 구혼자들이 그녀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탄식하고 행복하게 맺어졌을 때에

축하하는 노래를 부른다.

다시 궁전 앞의 광장으로 군중들은 무명의 왕자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트럼펫의 팡파르가 울리자 황제 알툼이 입장한다. 여덟 명의 현신이 수수께끼의 해답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대령하고 있다. 칼라프는 왕좌 앞에 서 있고, 포고문이 큰 소리로 다시 읽혀진다. 황제는 그 무명의 왕자에게 늦기 전에 생각을 바꾸라고 권하지만 칼라프는 거절한다. 투란도트 공주는 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 옛날, 이 궁전에 쳐들어온 타르타르 군의 젊은이가 왕녀를 잡아 잔인하게 능욕하고 죽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찾아온 젊은이에게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어 복수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셋, 죽음은 하나라고 공주가 말하자 칼라프 역시 수수께끼는 세 가지고 목숨은 단 하나뿐이라고 대담하게 대꾸한다.

공주는 그를 향해 첫번째 문제를 던진다. '들어라 젊은이여, 어둠을 비추고 다음 날 없어지는 것은?'이라고 묻자 그는 '희망'이라고 대답한다. 다시 둘째 문제로 '태어날 때는 열병과 같이 뜨겁다가 죽을 때는 차가워지는 것은'하고 묻자 그는 '피'라고 외친다. 군중은 칼라프를 성원하듯 환호성을 지르지만 공주는 장내를 정리시키고 화가 나서 그에게 달려 내려가서는 '그대에게 불을 붙이는 얼음은?'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칼라프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하다가 '투란도트'라고 소리지른다. 마침내 세 가지의 수수께끼를 모두 풀었다.

군중은 축복하지만 공주는 이름도 모르는 자와 결혼할 수 없다면 황제에게 다른 묘책을 강구해달라고 매달린다. 황제는 단호하게 약속은 신성하다며 거절한다. 칼라프는 공주에게 한 가지 문제를 제의한다. 만일 그녀가 동이 트기 전에 자기의 이름을 알아 맞춘다면 그녀를 자유롭게 해 줄 것이며 아울러 목숨까지 바치겠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마땅히 자기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제 3막 북경 왕궁의 정원과 광장

궁전의 정원에서 관리가 포고문을 외치고 있다. 왕자의 이름을 밝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핀, 판 그리고 폰은 칼라프로부터 이름을 들으려고 뇌물을 주면서 그대의 이름만 말해준다면 금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갖은 유혹을 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마침내 티무르와 류가 공주 앞에 끌려오고 공주는 그들에게 왕자의 이름을 밝히라고 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자 티무르를 고문하라고 지시한다. 류는 그를 구제할 속셈으로 오직 자신만이 왕자의 이름을 안다고 나선다. 공주는 그녀를 잔혹하게 고문하면서 이름을 묻지만 끝내 밝히지 않자, 공주는 의아해 하며 왜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사랑은 강하다(Tanto amore, segreto)'를 노래하고 계속해서 '얼음장 같은 공주님의 마음도(Tu che di gel cinta)'라는 아리아를 부른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병사의 단도를 빼어 자기의 가슴을 찌른다. 칼라프는 그녀의 숭엄한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애도하고 군중들도 나직한 목소리로 동정한다. 투란도트와 함께 남게 된 칼라프는 공주의 얼굴에 가려진 베일을 찢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죽음과 같은 공주여! 얼음과 같은 공주여!(Principessa di morte! Principessa di gelo!)'라고 노래한다.

여기까지 푸치니가 쓴 부분이고 다음부터는 알파노가 손을 댄 부분이 된다.

칼라프는 투란도트를 안으면서 열정적으로 키스를 한다. 그토록 냉정하던 그녀의 마음도 차차 봄 눈 녹 듯 스러진다. 그녀는 우아한 자세로 '넘치는 눈물(Del primo pianto)'이라는 아리아도 답한다. 칼라프는 나는 타무르의 아들, 타르타르의 왕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공주도 이제 나도 당신의 이름을 안다고 답한다.

장면이 바뀌어 궁전 밖이다. 황제는 그의 왕좌에 앉아 있고 광장에는 군중에 운집해 있다. 동이 트자 투란도트는 황제에게 이제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말한다. 그리고 몸을 돌려 칼라프의 눈을 응시한 채 그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소개한다. 칼라프는 공주를 포옹하고 군중은 꽃을 뿌리면서 즐겁게 사랑의 환희를 노래한다.